



롤러 걸 Roller Girl

빅토리아 제이미슨 글 · 그림/ 노은정 옮김
양장/ 240쪽/ 13,000원/ 출간일: 2016년 12월 16일
ISBN 978-89-491-4025-4 77800

2016 뉴베리 명예상 수상작

미국 아이들과 학부모, 도서관과 평단을
모두 사로잡은 화제의 그래픽 노블!

‘롤러 더비’에 푹 빠진 소녀가 두려움 없이 더 단단하고 강해지는 법을 배워 나가는 모습이 펼쳐진다. 제이미슨은 성장의 기복을 역동적인 그래픽 노블을 통해 완벽하게 그려냈다.

-뉴베리상 선정 이유

【수상 및 선정 내역】

- 2016 뉴베리 명예상
-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 2016 미국도서관협회(ALA) 주목할 ‘어린이 책’
- 2015 볼 인디 베스트 픽
- 뉴욕 타임스 북 리뷰 선정 ‘2015 주목할 어린이 책’
- 뉴욕 공립 도서관 선정 ‘2015 읽고 나눔 최고의 책’
- 2015 퍼블리셔서 위클리 ‘최고의 책’
- 2015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최고의 책’
- 2015 커커스 리뷰스 ‘최고의 책’
- 2015 페런츠 매거진 ‘최고의 어린이 책’
- 2015 시카고 공립 도서관 ‘최고의 책’
- 2015 너디 북 클럽 그래픽 노블 분야 수상작



- 웃음, 감동, 짜릿함!
걸 파워, 걸 크러시로 가득한 초등 그래픽노블

‘롤러 더비’라는 스포츠를 통해 성장의 통과외레들을 단단하고 당차게 겪어 나가는 열두 살 소녀 이야기 『롤러 걸』이 비룡소에서 출간되었다. 미국 출간 이후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와 도서관으로부터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작품으로, 그래픽노블로서는 드물게 2016년 뉴베리 명예상을 수상했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롤러 더비’는 팀을 이뤄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질주해 득점을 얻는 스포츠로 취미활동은 물론 정규 리그가 생성되어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종목이다. 작가 빅토리아 제이미슨은 실제로 롤러 더비 리그에서 활동하며 롤러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다. 국내 독자들에게는 조금 낯선 경기이지만 우리에게도 친숙한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그 경기를 처음 배우는 열두 살 ‘에스트리드’의 모습이 점층적으로 그려져, 코믹한 그림과 함께 새로운 운동경기를 함께 배워 나가는 짜릿한 즐거움이 느껴진다. 무엇보다 중학교 진학을 앞둔 열두 살 소녀가 ‘절친’과 처음으로 갈등을 겪고 새로운 환경에 몸소 부딪혀 나가는 모습, 자신을 아이 취급하는 엄마와의 갈등 등 오르락내리락하는 성장기의 모습이 더해져 스포츠 만화에서 한 단계 넘어선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보여 준다.

- 절친이랑 갑자기 멀어진 것 같다.
- 엄마가 골라 주는 옷은 죄다 마음에 안 든다.
- 중학교에 가기가 두렵다.
- 낯선 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을지 걱정이다.
- 조금 무섭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다!



『롤러 걸』은 그런 너랑 나랑, 우리의 이야기야!

엄마가 체험학습 삼아 데려가 보여 준 롤러 더비 경기를 보고 첫눈에 반한 에스트리드는 방학을 맞아 주니어 롤러 더비 캠프에 등록하기로 결심한다. 당연히 절친인 니콜과 함께 말이다. 하지만 니콜은 머뭇거리며 대답을 피하더니 하필이면 에스트리드가 학교에서 끔찍하게 싫어하는 여자애랑 발레 캠프에 등록해 버린다. 기억하는 한 모든 걸 함께해 온 니콜이 어쩔 이렇게 자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을까, 에스트리드는 화도 나고 괜한 오기도 생긴다.

결국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롤러 더비 캠프에 참가하게 된 에스트리드는 만만하게 봤던 롤러스케이팅이 결코 자신의 뜻대로 쉽게 굴러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무섭고 드세 보이는 언니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 걸까 자괴감이 드는 한편, 엄마와의 관계도 뜻하지 않게 어그러지려 한다. 그야말로 에스트리드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여름이 시작된 것이다.

곧 중학교 입학 앞둔 시기 아이들은 원하던 원하지 않은 많은 선택 앞에 놓인다. 각자 관심사와 성향이 분명해지며 쭉 함께해 왔던 친구가 나에게서 당혹스럽게 멀어지기도 하고, 화장을 하고 염색을 하게 되는 에스트리드처럼 마음이 간절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의 어린아이에서 조금씩 벗어나 낯설고 새로운 세계에 스스로 발을 디디게 된다. 『롤러 걸』은 그러한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성장의 기복’을 스스로 명들고 부딪히며 이겨 나가야 하는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유쾌하게 보여 준다. 볼수록 친근함과 따듯함이 느껴지는 매력적인 그림에 더해진 탄탄한 문장과 서사가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도 마음속을 든든하게 채워 주는 여운을 남게 한다.

● “더 굳세게, 더 강하게, 겁내지 말고!”

세상에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할 우리 딸에게 쥐어주고 싶은 책



“나는… 뭐랄까… 이러는 내가 낯설어.” -엄마

“첿!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딸, 에스트리드

-본문 178쪽에서

우리 딸은 요즘 무슨 생각, 무슨 고민을 할까? 사춘기를 겪기 시작한 아이들은 점차 부모의 시야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세계를 형성하게 된다. 어릴 때부터 함께하던 친구와 헤어져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교실에서 벗어난 낯선 환경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엄마에게 다 털어놓지 못할 비밀들이 생기기기도 한다. 어릴 적 자신도 경험해 보았던 일일 텐데도 엄마는 그렇게 변하는 딸이 낯설고, 딸은 이해하지 못할 게 분명한 엄마에게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문다.

에스트리드의 엄마는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에스트리드를 홀로 키운다. 딸의 건문을 넓혀 주고 싶어서 온갖 문화 체험의 밤, 미술관 전시 등에 딸을 열심히 데리고 다니고, 중학교 입학 앞두고서는 선머슴 같은 딸에게 단정하고 예쁜 모습을 갖춰 주려고 애쓴다. 하지만 에스트리드에게 그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에스트리드는 ‘롤러 더비’를 통해 자신 앞에 놓인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스스로 새로운 세계를 치열하게 온 몸으로 겪어 나간다. 작가는 에스트리드 앞에 놓인 환경과 마음속 변화를 유머 넘치는 입담으로 노련하게 엮어 내며, 특히 영원한 숙제인 엄마와 딸의 관계를 사실적으로 풀어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공감의 장을 마련해 준다.

모든 걸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챙겨 주고 싶지만, 아이는 원하던 원하지 않든 이제 울타리 밖에서도 스스로 많은 일들을 겪어 나가야 한다. 그것이 곧 성장이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어른의 신뢰어린 따뜻한 눈빛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마음과 용기일 것이다. 『롤러 걸』은 이제 그렇게 세상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될 아이에게 마음으로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인 셈이다.

● 해외 언론 리뷰

▶ 『롤러 걸』에 담긴 자아 발견, 우정, 인내심에 대한 메시지가 롤러의 바퀴처럼 당신의 마음속으로 곧장 굴러갈 것이다.

-레이나 텔게마이어 (『씨스터즈』 작가)

▶ 뉴베리 상을 수상한 이 그래픽 노블은 새로운 열정을 찾아내고 이전의 더욱 불확실한 자신에게 작별을 고하는 달콤 씁쓸함을 담아냈다. -뉴욕 타임즈 북 리뷰

▶ 제이미슨은 사춘기 직전의 불안을 예리한 결정적인 시선으로 포착해 냈다. 롤러 더비의 꼬이고 회전하는 속성을 사춘기 소녀들의 우정과 맞물려 훌륭하게 엮어 냈다. -커커스 리뷰

▶ 이 이야기는 독자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 독자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낼 것이다. -퍼블리셔스 위클리

▶ 제이미슨은 대화에서 심대를 매우 진정성 있게 포착해 냈다. -혼 북 리뷰

▶ 『롤러 걸』은 시각적으로 매우 매력적이면서 스토리텔링이 어느 그래픽 노블과 다르게 돋보인다. 자신을 새롭게 하고 친구 관계를 다시 가다듬고 싶거나 풍량이 거센 사춘기의 바다 속에 있는 십대 소녀들에게 멋진 선택이 될 것이다.

-시카고 트리뷴

● 작가 소개

글·그림 빅토리아 제이미슨 |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학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어린이 책 북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크루즈 배 선상에서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으며, 호주, 이탈리아, 캐나다에서도 살았답니다. 지금은 가족과 함께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 살고 있어요. 이진 비밀 아닌 비밀인데, '곰돌이 푸우'라는 별명으로 로즈 시티 롤러즈의 롤러 더비 리그에서 스케이트를 탄답니다.

옮긴이 노은정 |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린이 책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마법의 시간여행」, 「마음과 생각이 크는 책」, 「마녀 위니」 등 다양한 시리즈를 비롯해서 『초능력 다람쥐 율리시스』, 『플랜더스의 개』, 『밀가루 아기 키우기』 등 이제까지 300권이 넘는 책들을 번역했습니다.



담당: 편집부 장은혜(02-515-2000 내선 315, jeh@bir.co.kr)
홍보부 황수연(02-515-2000 내선 310, hwang@bir.co.kr)